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5일 화요일 음 11월 22일 (14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7°C, 낮 최고기온은 7~10°C로 전망된다. 제주도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 (강수 확률, 습도, 풍속, 파고). Rows show 60% probability of rain and 60% humidity for both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뜬달, 뜬달) and Time (달뜨, 달짐, 만조, 간조). Rows show sunrise at 07:39, sunset at 17:40, moonrise at 23:54, moonset at 11:50, high tide at 02:26, and low tide at 09:02.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호리고 비, 호리고 눈). Rows show 2/5°C and 0/1°C with rain or snow.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식중독, 감기) and Status (주의, 높음). Rows show '주의' for daily life and '높음' for food poisoning and colds.

월드뉴스

미국·멕시코 국경 다리서 출산한 여성

몇 미터 남겨두고 아기 낳아

걸어서 미국 국경을 넘으려던 온두라스 이민자 여성이 체 미국 땅을 밟지 못한 채 국경 다리 위에서 출산했다.



이그나시오 사라고사 다리.

를 출산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요원들이 산모와 아이를 멕시코 병원으로 후송했다. 아이에겐 멕시코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주와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잇는 이그나시오 사라고사 다리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멕시코 이민당국은 앞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 측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입국하려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산모는 레이디 에르난데스라는 이름의 24세 온두라스 여성으로, 미국을 향해 걸어서 다리를 건너다 중간에 진통이 심해져 더는 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국 정부는 망명이나 이민을 원하는 중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에르난데스처럼 불법 월경을 시도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오이타마울리파스' 등 멕시코 지역 언론들은 이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걸어가려고 했으나 몇 미터를 남겨두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여성들은 차 안에서 지켜본 행인 등의 도움으로 다리 위 멕시코 땅에서 아이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최근 화제의 방송 '싱어게인'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처럼 '다시' 노래하기를 통해 무명 가수들의 숨겨졌던 기량과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일종의 변종 오디션이다. 오래 그렇듯 심사자가 나오지만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들의 무대에 모두가 압도당한다. 이런 인재들을 이제라도 만나게 된 감동과 기쁨도 크지만 동시에 이들을 무대 위에서 기다리게만 했던 주류 매체의 편협한 안목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21, 비긴 어게인!

정해 재차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한 게 이뿐일까. 다른 수많은 분야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놓친 능력자들과 노력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한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도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데도...

오늘날 입시와 취업은 소위 '한방'으로 결정되고 그 방식이 가히 '공정'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 조건에서 단일한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경쟁방식이 우리 사회 보편적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극한 취업 경쟁에 시달리며 그 누구보다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층이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분노를 터트린 건 왜일까. 정규직이 되기 위해 무한 질주하는 단 하나의 트랙 외에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은 절대적 게임룰인 '공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다. 물론, 정

규직 수치를 단순 조정하려는 거칠고 조급한 정책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그러나 평가 기회는 무조건 한번의 시험 성적이야 하고 이로써 한 사람의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맹신이 더 큰 이유였다. 안타깝게도 그 최대 피해자인 젊은 세대들이 이 능력주의의 결과를 '공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상대적 승수를 결정하기 위해 비좁은 트랙 위에서만 진행돼야 하는 '공정한 게임' 그 작은 판에 짜 맞춰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과 수많은 가능성을 굳이 줄여야만 할까. 기회란 똑같이 평등하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도록 다양하게 주어질 때 비로소 공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즉,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효율적이나 가장 게으른 방법)를 엄정하게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각각도 바라보고 여러 차례 기회도 주며 좀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사회로 변

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의 평등을 공정한 양 착각하며 능력주의 사회를 자신도 모르게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비극을 멈출 수 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능력주의 신화가 마침 깨지기 시작했다. 뉴 노멀 세상에서 능력이 있을 거라 믿어졌던 엘리트와 사회배출층은 더 우왕좌왕했을 뿐, 위기 속에서 좀처럼 해결 능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사회가 서바이벌 경쟁을 멈추고 좀 더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할 기회와 문이 많이 열려 있었더라면!' 이 상상이 탄식과 후회로만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타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연대의식의 정착화가 필요하다. 지나간 시간과 과거의 평가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잠재된 가능성을 더 펼칠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자. 더군다나 때 마침 다시 시작할 용기와 희망을 북돋게 하는 새해 2021년이 밝았다.

열린마당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요즘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문, 담장, 환단 철거비와 주차면 포장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해야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등 도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90%까지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

2021년 제주농업 변화와 혁신 '턴어라운드'



신양수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코로나19 사태 속 거리두기로 인해 밥 한 끼조차 쉽지 않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했다고 표현치 않으리라 만은 2020년은 낯설과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제주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여름철에는 긴 장마와 계속된 태풍으로 작물 생육을 걱정해야 했고, 지금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과 월동채소 가격이 마음 졸인다.

그렇다고 위축돼 있을 수는 없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제주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021년을 제주농업 변화와 혁신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사업비 총 15억여 원을 투입해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시범사업 등 3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해 농업 경쟁력 체질 전환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DNA(Data-Network-AI) 농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제주형 시설원에 스마트팜 교육시설 완비, ICT 스마트팜 및 자동 관수·관비시스템 시범 등으로 디지털 농업을 통한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극조성 감귤 품종갱신을 통해 고품질 '맛'으로 승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명품 키위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세계 최고 주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키위 생체화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시범, 우리 품종 키위 대목 공급 등을 추진한다. 제주 청정 농산물과 농촌 어메니티를 연계한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창업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산하며 제주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1. Lists products like Red Honey, Cheonghae, and Gungcheon. Includes contact info and phone number 010-2691-1883.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ll Varieties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Lists varieties like Hwanggum, Red Honey, and Cheonghae. Includes contact info and phone number 064-733-7005.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Citrus Seedlings Asumi 4, 5-year old). Lists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prices. Includes contact info and phone number 010-2699-2355.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프라자' (International Hearing Aid Plaza). Promotes hearing aid services with government support. Includes contact info and phone number 743-7175.